



류종우 이사장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www.kcca.or.kr/
kcca@kcca.or.kr

병술년신년사

**업계의 단합과
신뢰를 구축하는
원년이 되길...**

새해가 되면 한해를 계획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, 금년만큼은 새로운 결심이
업계의 단합과 회사 발전이었으면 합니다.

지난 3년여 간 극도로 얼어붙었던 내수경기가 조금씩 풀려간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,
이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수산업 특성을 보
이는 우리 골판지포장산업은 국내 경기의 진작과 소비활성화가 경영회생의 결정적인 역
할을 하기 때문에 신년 벽두부터 이러한 소식을 숨죽여 지켜보게 합니다.

십이지간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는 우리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며, 악귀를 물리친다
는 의미를 갖고 있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병술년의 한해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재도약
이 시작되는 한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.

금년 한해는 골판지포장업계에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된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
는 해가 될 것입니다.

시장원리를 지향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폐지되
고, 포장재의 증금속 함유 규제 등이 새로운 경영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경쟁심화 및 고비

용 구조를 걱정하게 되었으며, 반면에 무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시책 추진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선거투표함이 골판지소재로 바뀐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업계 최대의 관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또한 고가로 구입했던 옥수수전분이 직수입됨으로서 업계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.

제도가 바뀌어 골판지포장업계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하지만, 적절한 대응은 우려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고,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.

포장재의 중금속 규제는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, 합성수지나 목재 포장 소재에도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중금속 없는 골판지포장을 생산한다면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아울러 배추를 포장하는데 골판지상자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원가절감과 적정 품질에 대한 연구 개발과 업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.

따라서 골판지포장업계의 활력을 찾아내는 일 앞에서는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2006년, 병술년은 업계의 단합과 신뢰를 재구축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우리조합에서도 업계의 관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2006년은 “골판지포장산업 시장기반 확충의 해”로 정하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밀천삼아 성공적인 한 해가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끝으로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, 신년을 맞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.

